

尹정부 2년간 돌려막기 이자만 7천867억원

문재인 정부 5년의 3배 넘어...국가 재정 위기 韓銀 일시 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 2배 넘어 안도걸 “비어가는 나라 ‘긱간’ 정확히 인식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무려 7천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천432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

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천억원으로 역대 2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7월까지 세수 실적은 전년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 대비 58%로 전년(6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



렸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8월 12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조6천억원) 총액을 9조5천억원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15조4천억원에 달한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돈을 쓰다 보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은에 1천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1천141억원)보다 13%(150억원) 많은 금액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 보다는 무려 11.5배나 많다. 재정증권 발행액도 1-7월 44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 총액(44조5천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7월까지 발생한 재정증권 이자는 1천95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136억원)보다 70%(719억원) 급증했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조달을 우선해야 한다. 재정의 화폐화를 우려해 중앙은행에서 함부로 돈을 빌리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상반기 자금조달 방식은 한은 일시차입금(91조6천억원)이 재정증권 발행액(40조8천억원)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임시로 빌려 재정을 운영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돌려막기한 이자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세수 결손으로 부족한 나라 재정이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

난 8월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한은차입금 이자 총액은 2천95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천9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국가 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 재정 여력이 더 줄어든다”며 “정부는 비어가는 나라 ‘긱간’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부자 감세 등 나라 긱간을 축내는 일을 멈추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민생’에 협치, ‘특검’도 고삐...이재명 對與 강온전술

野공조 ‘제3자 특검법’ 예고...文 수사 대책기구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와 ‘특검 공세’를 동시에 앞세우는 모습이다. 우선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약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민생 입법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와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기 위한 공세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군소 야당과 함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3자 추천’ 특검은 앞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에 제안했던 것인 만큼 야권이 함께 발의해 국민의힘에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최 전후로 하려 했던 특검법 제발의 시점은 잠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다른 야당들과 특검법안의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금명간 발의하기는 시간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태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수십 명이 전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 대표는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양부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6개월 넘게 오류”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남구 339건 ▲구례 1천331건 ▲강진 4천833건 ▲영광 822건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정준호, 오늘 ‘국가폭력 피해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이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 국가의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광주 시의회와 5·18기념재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민주당 추미애·진선미·송옥주·손명수·전진숙·정진욱·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5·18 기념사업법 제정



과 관련해 학계·연구자·시민사회·기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의 간섭 없는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다. 토론회 발제는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